

약자와 동행하는 세계도시... 취약계층·고령자 맞춤형 대책 성과

디지털 도우미 등 정책 추진 확대
충청시, 노약자 등 이용센터 개방
슈투트가르트시, 디지털 도우미 확대
페낭주, 고령 친화도시 조성 목표



지난 9일 말레이시아 페낭의 한 거리에서 어르신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취약계층 쉼터, 디지털 도우미, 고령자 맞춤형 대책 등 약자와 동행하는 정책을 추진해 그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는 노동자 쉼터를 취약계층에게 개방해 공익 쉼터로 업그레이드했다. 노동자 쉼터는 고정된 휴식 공간없이 일하는 일용직·비정규직·계약직·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충칭시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온 무료 휴게소로 에어컨, 냉장고, 정수기, 전자레인지, 휴대폰 고속충전기, 와이파이 공유기 등이 갖춰져 있다. 올 상반기 82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면서 충칭시의 노동자 쉼터는 총 1320개로 늘었고, 이로 인해 60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충칭시는 작년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임산부와 갈 곳 없는 어린이, 청소년 등으로 노동자 쉼터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연구원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노약자도 쉼터를 이용해 함으로써 공익 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시에서는 현재 약 100명이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도우미로 활동 중이다. 디지털 도우미들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세상 진입을 돕기 위해 스마트

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슈투트가르트시는 노인 세대에게 가족과의 화상 통화, 온라인 쇼핑, 의사와 디지털 상담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페낭주는 보조금 지원과 인프라 개선으로 고령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페낭주의 인구 대비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14.9%로, 페락주(15.3%)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다.

페낭주는 2025년까지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노인의 신체 활동을 돕는 체육 시설을 설치했고,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을 방지하고자 만남의 공간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페낭주는 은퇴자에게 공공 화장실 청소나 요금 관리 등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공공 일자리 사업을 벌였다. 어르신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덜-윈터

치 페낭'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했다. 앱을 통해 어르신들은 요양원·병원·진료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긴급 전화, 공유 자전거 예약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페낭주는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세자트라', '시니어 시티즌십 어프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이세자트라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미혼모, 2세 이하 아동,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연 150~200링깃(한화 약 4~6만원)을 보조하는 복지 정책이다. 시니어 시티즌십 어프리케이션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시민에게 연 130링깃(약 3만원)을 지급하고, 사망 후 가족에게 장례 비용으로 1000링깃(약 28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페낭주 정부의 고령층 지원책이다.

서울연구원은 "페낭주는 노인 현금 지원 정책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행해 다각도로 고령층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I 도입 후 성범죄영상 모니터링 건수 13배 ↑

서울시, SNS 피해 영상물 실시간 감시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영상 추적·감시 시스템 도입 후 영상 모니터링 건수가 13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삭제 지원 건수도 갑절로 늘었다.

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작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센터는 올 3월 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AI 삭제 지원 기술을 개발·도입했다. 이를 통해 센터는 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실시간 자동으로 추적·감시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

니터링 건수는 45만7440건으로, 전년 동기(3만3511건) 대비 1265% 늘었다.

피해 영상물을 찾아내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 사람이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고 영상물을 검출하기까지는 평균 2시간이 걸렸는데,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3분 만에 영상물을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지난 7개월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는 4141건으로 AI 기술 도입 전(2049건)과 비교해 102%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적용된 만큼, 향후 AI 학습 데이터가 축적되면 정확도와 속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수능일 지하철 집중배차·비상수송

이달 16일 시험장 주변 도로통제

서울시는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교통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는 지하철 오전 집중 배차 시간을 종전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연장하고, 해당 시간대에 지하철을 31회 추가 운행한다.

시내·마을버스는 수험생 입실 시간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운전원의 휴게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최소 배차 간격을 유지해 운행한다.

지하철 역사와 버스 내부엔 시험장행 노선·위치 안내문이 부착된다.

수험생 수송 지원 차량도 운행한다. 민·관용 차량 698대가 시험장 인근의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주요 지점 등에 대기하며 수험생이 승차를 요청하면 시

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 준다.

자치구 공무원과 민간단체 봉사자 등 2400여명이 시험장 주변이나 교통 이동 주요 지점에 배치돼 비상수송 차량 탑승, 교통질서 유지를 돕는다.

수험생이 제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 자치구, 관공서 등의 시험 당일 출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수험생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시험장 인근 지하철 시설물 검사와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수능 시험 당일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시는 시험장 반경 2km 이내 학교 및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험장 200m 전방 도로에서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진입·출입이 통제되며 주차도 금지된다.

/김현정 기자

“올 수능 결시율, 재학생 늘고 N수생 줄듯”

종로학원, 올해 6·9월 모평 토대 전망
고3 재학생 지난해 12%보다 높아질 것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고3 학생 결시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지고 반대로 N수생은 결시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능 결시율이 높을 경우 수능 최저등급을 맞춰야 하는 수시 전형이 불리해지는 등 대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한 모의평가가 당시 재학생 결시율은 23.4%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모의평가 때(18.4%)보다도 무려 5%p 오른 수치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결시율(18%)과 비교해도 크게 올랐다.

이런 흐름에 따라 올해 고3 재학생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강남구 현대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이 메트로신문 수능 특별판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의 수능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킬러(초고난도)문항 배제 원칙이 적용된 중요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고

3 재학생 결시율이 높아지는 이례적 양상을 보였다"라며 "수능 고3 재학생의 올해 결시율은 12.0%였던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3년간 재학생과 N수생의 수능 결시율을 살펴보면, ▲2021학년도 14.7% ▲2022학년도 12.1% ▲2023학년도 11.9%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같은 기간 고3 재학생 결시율은 ▲2021학년도 14.9%, 2022학년도 11.6%로 낮아졌다가 2023학년도에 12.0%로 다소 높아졌다.

반면 재수생 결시율은 고3 재학생과 대조적 양상을 보인다. 재수생은 ▲2021학년도 14.2% ▲2022학년도 13.2% ▲2023학년도 11.7%로 연속 낮아지고 있다.

올해도 재수생 수능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학원은 내다 봤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9 | 해질 / 17:23

11월 13일 (월)
음력 : 10월 1일

수도권 날씨
-3 ~ 7°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 연천 -6/7
- 동두천 -6/7
- 가평 -5/8
- 파주 -8/7
- 서울 -3/7
- 양평 -4/7
- 인천 -1/6
- 수원 -2/6
- 용인 -2/6
- 평택 -5/8
- 백령도 3/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이스라엘군 “하마스, 가자지구 통제력 상실”
▲프란치스코 교황, 미 텍사스의 스트릭랜드 보수파 주교 해임 /사진 뉴스

▲앤디 김, 美 뉴저지서 선거운동 개시... 첫 한국계 상원의원 도전
▲훗런던서 ‘팜’ 지지 시위대 행진... 경찰과 극우파 충돌



▲유럽사령부, “동지중해 상공에서 미군기 1대 훈련중 추락” /사진 뉴스
▲日 기사다 총리 “안보환경 엄중... 방위력 강화할 것”